

<지부장 호소문>

'유성투쟁, 2016년 투쟁'

지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듭시다!



노동조합 간부들마다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조합원들도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쟁은 각개약진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보면 개별자본의 탄압일 수 있으나 넓게 보면 정권과 대자본의 '민주노조 파괴'이고 '투쟁하는 노동자 죽이기'인데 말입니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려는 정권과 자본이 있는 한 노동자의 투쟁은 멈출 수가 없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투쟁에서 보듯이 유성투쟁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유성자본의 뒤에는 현대차라는 재벌자본이 있었고 경찰, 검찰, 노동청의 '자본 봐주기'가 있었고 '민주노조 파괴' 전문꾼인 창조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유성조합원의 투쟁이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저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처럼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하는 조합원과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현재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리 저리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인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 개인을 계속·지속적으로 괴롭혀 저항을 포기시키려 하는 자본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입니다. 임금을 차별하고, 징계로 협박하고, 모욕 주고, 감시하고, 고소·고발로 위협하고,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 개인이 저항하지 않을 때까지, 노예를 삶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노무관리입니다. 일반현장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전충북 조합원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적들의 파상공세를 막고 기회를 만들고자 고지를 잡고 모든 전투력을 집결하는 전술을 펴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노조 파괴, 가학적 노무관리'가 지역·전국의 민주노조 현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고지를 잡고 투쟁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유성투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길고 긴 유성투쟁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현재의 투쟁보다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조합원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대전충북지부의 투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전충북지부 확대간부 동지들께, 조합원 동지들께, 함께 투쟁하자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부의 결정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부의 투쟁에 복무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전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의 힘으로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하고, '유성투쟁 승리!'하고, '2016년 투쟁 반드시 승리!'하여, 2016년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노동탄압을 박살내는 지부 조직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